

金彦培 新作研究 (1999년 개인전 발표작을 중심으로)*

김언배
섬유디자인정공

A Study on recent work of Kim,un-bae (focusing on one manshow of 1999')

Kim, un-bae
College of Design, Major in Textile Design

I. 개요

1999년 7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3개월여 동안 서울의 중구 장충동 소재 섬유전문 화랑인 FINE CENTER Gallery Fine에서는 '21C섬유패션의 전망'展이 개최되었다. (사진 1,2)

섬유작가 6인과 패션디자이너 3인의 초대 개인전이 열렸고 기간중 한국 섬유패션연합의 창립전이 또한 개최되었다.

행사는 뉴질랜드 ASHFORD HANDICRAFT회사의 Mrs. POWENA에 의한 SPINNING & FELT¹⁾ WORKSHOP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대사등 관계자의 참석하에 개막되었으며, FINE CENTER측의 새로운 염색기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주최측인 FINE CENTER외에도 한독섬유, 창신섬유등의 관련업체에서 후원하였으며 김언배 초대전은 기간중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시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 전시에 출품된 김언배의 최근작을 일견해 봄으로서 작가연구의 기초자료적 근거를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 이 논문은 2001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펠트(Felt)양모등을 축융하여 천과 같이 만든 것 「섬유사전」 한국섬유공학회, 1989



(사진1) FINE CENTER



(사진2) '21C점유패션의 전망' 현수막

II. 작품연구

1. 내용면

1) 주제의미 : 「가야를 찾아서 : Search for kaya」

가야는 「四國時代」²⁾로의 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비의 세계로 현전하는 신화의 시대이다. 가야사 연구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실학자들에 의해 비로소 관심분야로 대두 되었다고 할 수 있거니와 정약용은 그의 변진고를 통하여 '신라사를 지은 자는 마땅히 가야본기를 지어야 했으나 김부식이 빠뜨렸으므로 내가 변진고를 지었다'고 하였으며³⁾ 가야는 해운 조건을 이용하여 발전하므로서 신라를 속국으로 할 수 있었다고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⁴⁾ 최근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등 고대사 관련 문헌의 해석과 역사적 관점은 사학계에 서도 중요 논점으로 전개되고 있거니와 '과거역사를 작품 전개의 모티브로 삼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正史의사실 근거에 기초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화적 요소나 그에 파생되는 신비주의적 요소에 의하여 훨씬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야의 모호한 역사는 디자인 혹은 예술적 소재로서 역설적으로 적합할 수 있 거니와 그것은 작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왕성한 상상력을 가동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⁵⁾

2) 고준환, 「4국시대 신비왕국가야」 (서울 : 우리출판사, 1993)

3) 김시우, 「가락국 천오백년 잠깨다」(도서출판)

4) 韓鎭書, 「海東歷史·續」券3地理考三韓振, 1823

2) 키퍼의 신화와 김언배의 신화

신화(神話, mythe(프), myth(dud), Mythe(독)의 어원은 ‘이야기’ ‘전설’을 뜻하는 그리스어 mythos에서 유래하거나 신화의 허구적이고 모호한 내용때문에 사람들은 신화를 철학적·과학적 합리성과 대비되는 미개인이거나 유아기의 특징인 소박하고 환상적인 표상으로 여겨왔다. 그리스 철학은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신화를 극복함으로써 탄생할 수 있었으며, 신화에 대립해서 합리적이고 참된 담론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오늘날 민족학은 신화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민족학은 다양한 신화의 밑바탕에서 작동하고 있는 질서를 읽어냈다.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claude 1908 ~)의 저작들은 신화를 ‘前논리적인(레비-브뤼)것으로 보기보다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 논리라고 할 수 있는 이원적 대립의 체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신화적 사유와 합리적 사유사이에는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성의 차이는 없다.

자신의 작품내용으로 신화적요소를 차용하는 대표적 작가중의 하나인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1945 ~ 독일출생)에 대하여 평론가 유재길은 그의 신화에서 21C미술의 생명력을 읽고 있다.

... 키퍼는 가장 지역적인 요소와 정치적 주제, 신화적 내용으로 신표현주의 작업을 고집해 왔다. 현재에도 그는 동일한 내용과 주제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키퍼는 같은 경향으로 활동했던 80년대 미국의 뉴페인팅, 이탈리아의 트랜스 야방가르드, 프랑스의 자유형상 작가들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몇 안되는 작가중 한 명이다.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199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키퍼는 거대한 화폭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그려 출품하였다. 이는 80년대 고대 이집트 신화를 그린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앞으로의 미술을 예측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은 키퍼의 오브제나 릴리프 작품 같은 회화다. 그는 결코 회화적 표현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기법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독일적인 것이나 정치적 사건,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신화와 역사를 발굴하고 재해석하여 자신의 시각을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표현에 집중한다.⁶⁾

과거 한 때 총체적인 사회였으나 이제는 역사적 비탄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분열된 사회를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내며 미술이 이시대 최악의 불행을 진정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미술이 어떠한 주제도 다룰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 키퍼이기 때문에 핵심적 포스트 모더니스트로 불리기도 한다. 피터 수젤달이 썼듯이 모더니즘은 키퍼가 그것을 기억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끝나 버렸다.⁷⁾

이와 같이 키퍼의 ‘신화’는 포스트 모던의 비고정성주의와 불확정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확보하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다.

김언배의 경우는 역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신화화된 사회적, 역사적 특수성의 아이러니 속에 현전하는 가야시대와 또다른 신화로서 접점을 이루고 있다.

한국인의 인명을 살펴보면 성과 본관은 가문을, 이름은 가문의 대수를 나타내는 항렬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구별은 물론 가문의 세대까지 나타나, 세계

5) 김언배, 「가야유물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연구」(울산대학교 조형대학 논총 제1권 제3호 p91

6) 유재길, 21세기 프론티어, 新미술인의 길, 「월간미술」, P59 9월호 (서울:중앙일보,1999)

7) H. H. Arnason, History of Modern Art -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photography, 이영철 外譯, 현대미술의 역사, 인터내셔널 아트 - 디자인, 1991, p703

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성명체계이다.⁸⁾ 즉 한국인은 누구나 자신의 성명 및 족보학적 초기값에서 출발하여 시간을 역류하면 시조의 신화시대와 만날 수 있고, 그러므로 신화적 존재로서 자신의 원형과 해후 할 수 있게 된다. 김언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관 김해(金海)에 이미 태생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스키토 사이베리아, 금해(Gold Sea), 철(鐵, Iron)의 문화, 가야 혹은 가락문화, 쌍어와 태양숭배, 인도 아유타 왕국과 일본서기의 신공왕후(神功王后)등 2000년의 대서사적 통사로서의 신화를 운명으로 지니게 된 것이며 이러한 신화적 혹은 민족학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1990년 가야문화적인 울산거주와 본관의 도시이자 가야문화의 발상지인 김해와의 만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항렬체계에서 시조 김수로(금 알떠마로)로부터 71세손이라는 2000여년의 시간성이 담보되며 삼국유사, 삼국사기등의 텍스트에는 수많은 은유와 상징으로서의 신화들이 함의되어있다.

요컨대 김언배의 작품속에 등장하는 가야시대의 신화 혹은 신화로서의 가야는 잠재되고 은닉된 그러므로 다시 신화가 되어버린 인류의 운명에 관한 알레고리이다.

중략'

원시반본, 선조의 영광이 찬연히 되살아 과거가 현재와 더불어 당당하게 부활하는 그날을 믿는다.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커지는 법. 연구자도 많지 않고 자료도 부실하지만, 최근 여건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줄 안다. 수로와 유신이, 그리고 홍도가 자원을 아끼지 않을 줄 믿는다. 겨울이 가면 틀림없이 봄이 오듯이 긴 동면에서 깨어나 움츠린 어깨를 펴고 안개속에서 말탄이가 씩씩하게 진군할 것이다.

지금 밤은 어둡고 추운데 도무지 지척을 분간 할수 없고 다시 요란한 전화벨 소리와 민첩한 단락반응.⁹⁾

가야연구와 관련하여 1994년 공평아트센터의 개인전 도록에 실린 울산대 철학과 손영식 교수의 글 중 후반부를 전재한다. 글의 제목은 가야의 어의(語義)적 다의성(多義性)에 그의 자의적 해석을 붙여 「가야,가야,가야에,가보세,잡오세」였다.

「가야,가야,가야에,가보세,잡오세」

가야의 꿈, 가야의 신화 : 김언배 선생은 말했다. 자신과 가야의 만남은 소름이 끼치도록 운명적인 것이며, 그 삶이 필연적으로 가야, 가야할 곳이었다.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있고 있었지, 네가 있다는걸. 살아가는 동안 험겨웠던 기억이 너를 찾아가게 하네.” 그것은 그가 가진 자유에의 환상이 이룬 혁명이라고. 이렇게 가야의 신화는 이 그림들로 찬란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우리에게 가야란 어떤 의미인가? 잃어버린 나라, 신비의 나라, 아쉬운 거인으로 다가 오는 어떤 것이리라. 그러듯이 이 그림에서 가야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신화의 운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알타미라 동굴, 울산군 천전리나 반구대의 그림들이 전하는 것은 선사 시대의 모습이지만, 화가의 눈에는 신화의 시대로 드러난다. 마치 “주몽의 꿈”처럼 『삼국유사』가 그리는 신라 그 신화의 시대처럼 가야의 꿈이 수줍게 이 그림들에서 앞테도 뒷테도 다 보인다.

이 그림들 앞에 서면 우리는 곧 두개의 세계와 만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김언배 선생과 세상과 김수로와 허황옥의 가야, 혹은 현실과 신화의 세계. 우리의 삶에 신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화란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 우리는 각박한 현실에서 고단한 삶을 끌고 간다.

8) 이수건, “한국 성관(性貫)의 유래와 특징” 『한국사 시민강좌』, 제24집(서울 : 일조각, 1999), p24

9) 김언배, “해방과 영혼을 위해 다시 과거로 향하는 여정”, 『교수신문』, 1994. 3. 16일자

그래서 가야 할 곳은 가야의 꿈, 가야의 신화라는 것이다. 이는 신화로의 퇴각도 아니며, 유아기적 퇴행도 아니다. 다만 이 땅에 살기 위하여 가야 한다. 현실의 벽은 우리를 신화의 시대로 이끈다. 인생의 비참함을 감싸 안은 따뜻한 눈을 갖는 것. 그것은 결국 새롭게 신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유토피아 의식이며, 신화가 그리는 사랑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 속에 우리는 현실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를 탈취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그림들에서 씨족의 전설을 들을 수 있다. 매력적인 한 여자 허황옥이 그렇게 먼 길을 에둘러서 찾았던 한 사나이, 그는 알에서 태어난 '쇠를 다루는 자의 우두머리' 김수로 알떠마로였다. 알떠마로의 꿈은 김언배 선생의 삶으로 연결되었다. 김선생이 울산대 교수로 와서 운명적으로 가야에 접한 것은 다만 개인사와 접목되는 것일까. 아마 나아가 동학의 시대, 분단시대의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가야가 가야에 가보세 갑오세에. 이 그림이 표현하는 기호들은 가야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물고기, 김수로가 태어난 알, 신성한 나무, 칼 갑옷 투구 뿔잔, 배, 사람의 눈(물고기와 같은 모양임), 겹겹이 그린 동심원(해, 블랙홀, 우물, 영혼?) 등등이다. 네모속의 알들은 한 가족, 혹은 가야 연맹일수도 있다.

그속의 사람들은 무사적인 씩씩함이 있다. 둥글게 그려진 미로는 우리가 찾아나가야 할 길이며, 계단은 역사의 길이리라. 전체적으로 신화의 신성함으로 감싸진 하나의 사회이리라,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엄숙한 명령. 운명처럼 속삭이는 하늘의 명령(天命)이다. 이그림들이 표현하는 여러 이미지들,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리라, 이 대화에 우리는 추억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초대받았으며, 숨가쁘게 그려진 가야의 꿈, 가야의 신화를 만나는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2. 형식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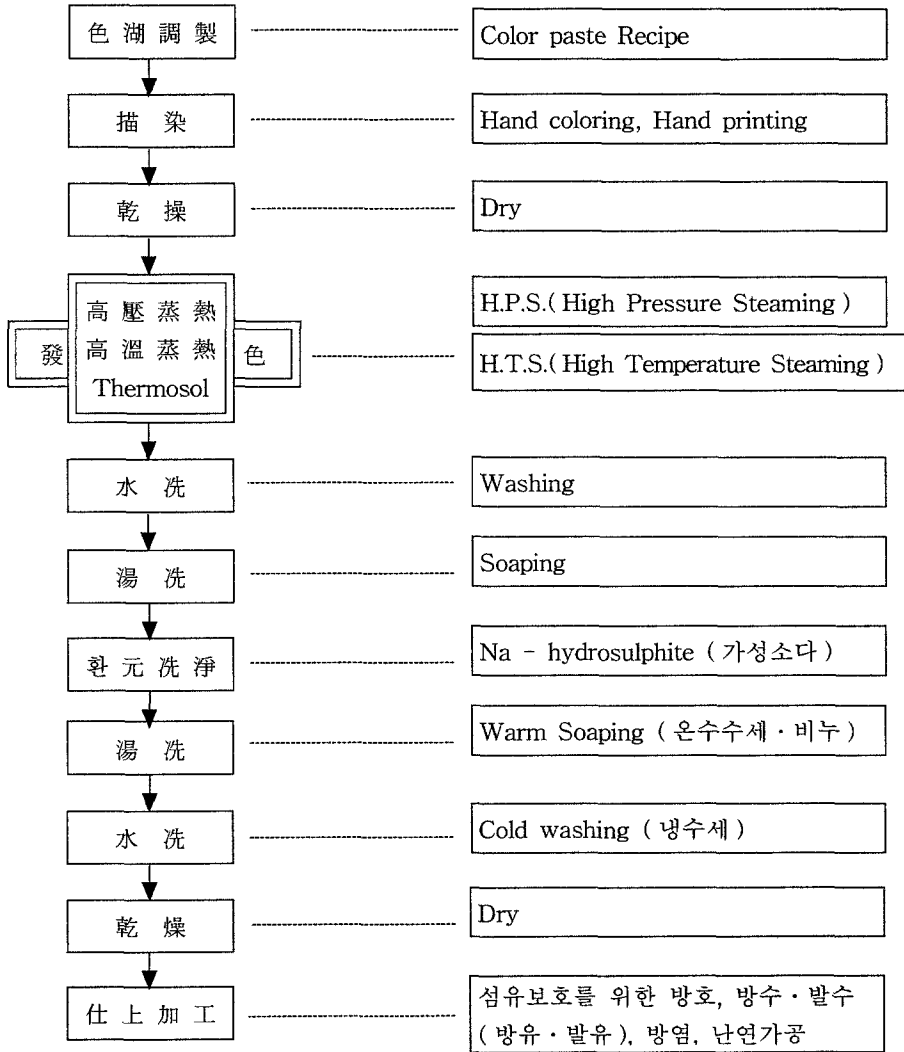
1) 섬유소재 및 제작공정

작품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섬유소재인 폴리에스테르 감람직물 (Polyester Pilling fabric) 과 그에 상응하는 색재로서의 분산염료에 대하여는 본인의 석사논문인 PET 感量織物の染色作品 應用研究을 分散染料의 描防染 技法을 中心)으로 - 및 관계 문헌을 참고하면 될 것이며 여기서는 PET 섬유의 특징과 제작공정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PET섬유의 성질

- 1) 인장강도는 나일론과 거의 같다.
- 2) 습윤강력 및 마찰강도도 강력하다.
- 3) 비중은 1.38로서 양모와 유사한 촉감과 성질을 갖고 있다.
- 4) 탄성이 강하며 주름회복력이 양모와 같은 정도이고 습윤상태에서도 양모보다 우수하다.
- 5) 흡습성은 0.4%이며 나일론의 4 %에 비해 대단히 적고 건조가 빠르며 세탁이 쉽다.
- 6)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일광 견뢰성은 나일론보다 강하고 耐藥品性도 일반적으로 우수하다. 특히 酸에 대하여 강력한 耐性을 갖고 있으며 좁과 벌레에 강하다
- 7) 열가소성을 이용하여 Plisse(입체가공)가 잘 된다.
- 8) 전기절연성이 크며 정전기를 일으키기 쉽다.
- 9) 염색은 특수염료를 사용해야 한다. 내열성이 높으며 연화온도는 238° ~ 240℃이고 熔融溫度는 255° ~ 260℃이다.
- 10) 불에 닿으면 서서히 용해하면서 연소하나 불을 제거하면 자연히 꺼진다.
- 11) 熔融된 폴리에스테르를 냉각시키면 견고한 검은색의 덩어리가 된다.
- 12) Iron은 140℃ 이하가 좋다.

PET纖維의 제조원리는 크실렌(Xylene), 나프탈린(Naphtalene), 톨루엔(Toulene)등을 원료로 하여 합성된 테레프탈산과 석유중의 에틸렌(Ethylene)으로 만들어진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폴리에스 테르칩(Chip)을 용해시켜 방사한다.



Polyester 描染工程圖

2. 표현 기법

- 가. Instant Slide Printing Process 부록 1참조
- 나. Discharge & Resist Printing Process
- 다. Saltdye & Spray
- 라. 기타

III. 결어

한국인의 독특한 씨족 (氏族,Clan)집단 문화와 그 씨족에서 분화 (分化)된 가계(家系, Lineage)를 우선으로 여기는 혈족집단의 사회학적 신화를 재검토하므로서 민족학적 신화학(神話學, mythologie)세계의 접근통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수단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소서사적 지역학적 패러다임의 다양한 가능태를 잠재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21C문화의 다원화시대에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기능 할 것으로 추론된다.

작품목록(作品目錄)

1. 절대타자(絶對他者 : Das ganz Andere) 15×15

절대타자는 오토(R. Otto)의 개념으로 신은 사람과 세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실재이다. 구지봉에 현전하는 여섯개의 알에서 초월적 실재의 승업(Sublime)을 유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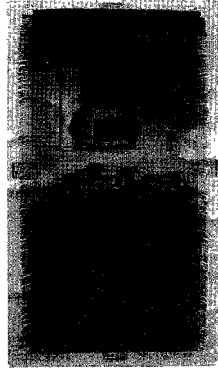


2. 묘비명(墓碑銘 : Epitaph) 10.5×16

가야 김수로왕의 묘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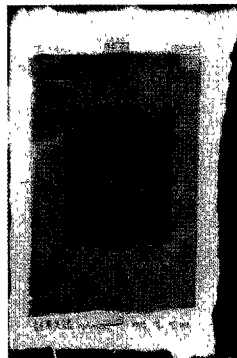


3. 금을 띤 머리로(金首露의 古語), 1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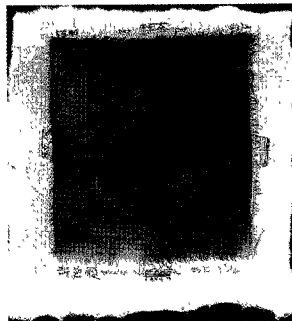
4. 語義失語 14.5×24

소리만 남기고 뜻을 잃은 어의실어(語義失語)는 실어증(失語症, aphasia)의 형태로서 가야의 태양은 감각성 실어의 표상이다.



5. 연수(延髓, Medulla oblongata) 16.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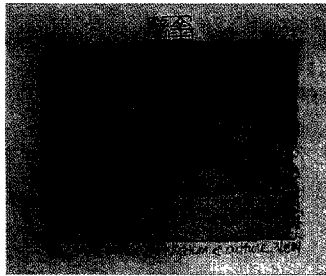
생명유지에 절대 필요한 자율신경의 중추가 여기에 모여있다. 삼킴, 흡인, 구토, 씹음, 침과 눈물의 분비, 기침, 재채기, 눈꺼풀의 여닫음, 발성, 호흡과 심장운동, 혈압과 혈당의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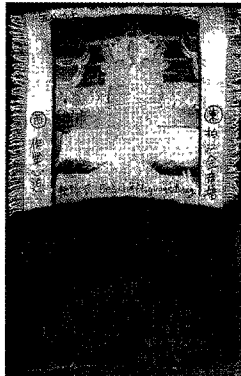
6. 문화인류학(文化人類學, Culture anthropology), 12×10
인도문화와의 차연(差延, differance)
Derrida의 디페랑스는 디페랑스처럼 무심하다.



7. 문화의 교차(文化의 交叉, Cross-fertilization of culture) 15×15
김수로왕과 국제결혼한 인도 아유타 공주의 도래, 장유화상 허보옥에 의한 불교의 1
세기 가야초전, 가야 황차의 도입 가야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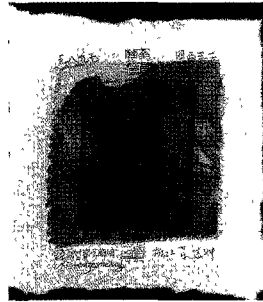


8. 작업심박(作業心迫, Tatendrang, Beschäftigungsdrang) 15×20
경조병(輕躁病), 흥분상태가 아니어도 나는 늘 쫓긴다.



9. 실존해명(實存解明, Existenzerhellung) 18×18
싸움이란 동시에 사랑이다.(liebender kampf)

비약의 고난(苦難)을 회피(回避)하는 현존재에 대한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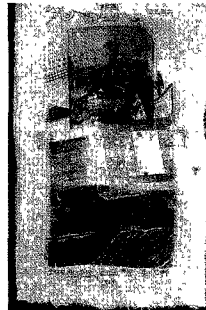
10. 生의 充足理由의 原理(principium rationis sufficientis 라두야) 13×27
A, Schopenhauer, 인과율(因果律), 연속 원인과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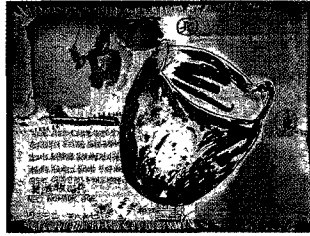
11. 상호교섭(相互交渉, reciprocity) 17×31.5

$$\frac{\text{현실의 선택수}}{n^2 - n} \times 100 (n \text{인의 집단})$$

상호행위 및 상호반작용



12. 신유목시대(新遊牧時代, Neonomadic age) 19×15
동북과 구유목민, 신유목민의 알레고리, 나는 서북시대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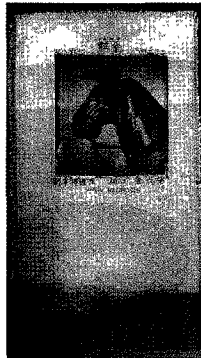
13. 전쟁신경증(戰爭神經症, war neurosis, neuros de guerre) 13×27

①정동반응(情動反應), shellshock

②목적반응 . . . 나는 탈영하고 싶다. 나는 제대하고 싶다.

나는 혼미(昏迷)한 상태이다. 몽롱(朦朧)하다. 전율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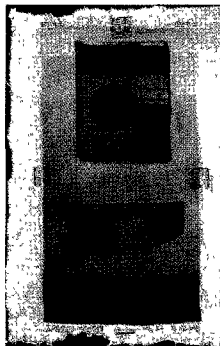
나는 박제가 되어버린 말(馬)이다. 영원한 정지이다.



14. 태양숭배(太陽崇拜, heliolatry, sun-worship) 17×27

또한 내 아내는 글라라이머 내딸은 해처럼 빛나리이다.

glara, gloria, ha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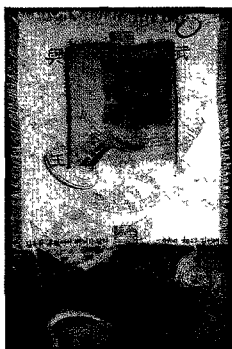


15. 사행(事行, Tathandlung) 23.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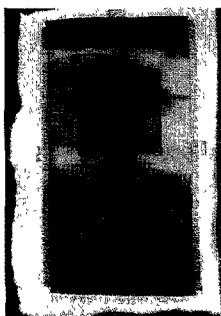
J.G.Fichte, 純粹活動. 자아의 활동은 자기 자신을 정립(定立)하는 활동이며 자아가 존재하는 활동이며 자아가 존재하는 것은 자기자신을 정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아(自我)에 있어서는 자기정립의 활동(Handlung)과 그 결과(Tat)가 동일한 것이다.



16. 김유신 무덤에서 뛰쳐나왔다. 15×27
 ‘김유신 무덤에서 뛰쳐나오다’ 신문기자의 독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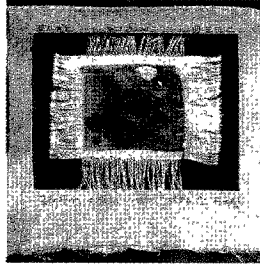


17. 통각탈실(痛覺脫失; analgesia) 18×35
 감각탈실(感覺脫失; anaesthesia) 촉각탈실 tactile- 온도감각탈실 thermal-
 감온은 기질적(氣質的; organic)인가, 기능적(機能的; function-al)인가, 무감각한 피부
 감각의 Cogi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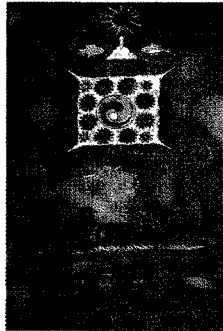
18. 프라아나 Prana 15×15

범어(梵語)로 생기(生氣), 호흡을 의미하는 말
호기(呼氣; Prana), 흡기(吸氣; apana) 매기(煤氣; vyana) 상기(上氣; udana) 등기(等氣; samana) ... 오풍설(五風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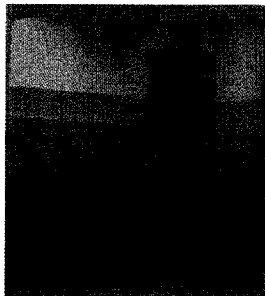
19. 동맹(同盟: ALLIANCE): 말의 피를 나누어 마시고 쓰다. 140×200

나의 동맹은 과거와 현재의 그것이며 그러므로 상생의 미래이다.
단군과 나의 연합이며 수로와 유산과 홍도와 또한 나와와 제휴이다.
그들은 모두 나의 과거모습이며, 그러므로 일치의 미학이다.
또다른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와 말의 피를 나누어 마시고자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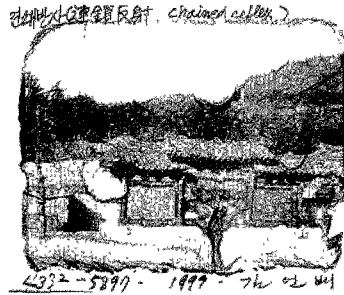


20. 열성섬망(熱性譫妄; Fieberdelirien) 36×34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렸다.



21. 연쇄반사(連鎖反射; Chained reflex) 12×12 H.Spe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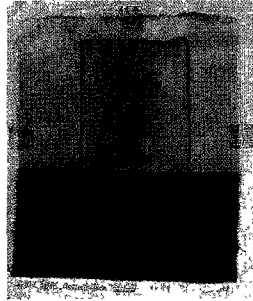
22. 자의어(自義語; autosemantika) 16.5×37
 공의어(公義語; synsemantika)
 허 황옥은 자의적 autosemantisch인가 공의적 synsemantisch인가?



23. 상호심리학(相互心理學; intersychology) 17×32.5
 심간심리학(心間心理學; Psychologie intermentale)
 뇌간심리학(腦間心理學; Psychologie intercerrbrale) J.Tar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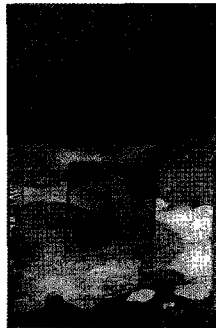
24. 유화(類化; Assimilation) 16×20
너에게 나를 보낸다.



25. sign-gestalt 18×34

E.C.Tolman

이 조건반응은 기호관계 signrelationship에 관한 반응이며 수단-목적관계<meansend relationship>에 관한 반응이다. 학습은 <무엇이 무엇으로 이끌어 가는가 what leads to what>를 배우는 것으로, 목표에의 사인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sign-gestalt이다.



26. 민족심리학(民族心理學; folk psychology) 15.5×32

임무 1.민족정신 일반의 성립과 발전을 서술하고 도덕, 신화, 언어등의 형성 및 발전 법칙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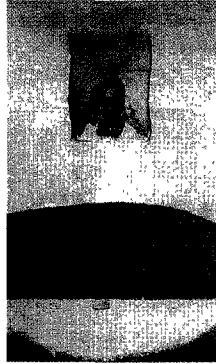


27. 세대교번(世代交番; alternation of generation)

너희는 서로 임무를 교대하기로 한다.

Shem의 형제 여러분, 구스의 불가장은 말라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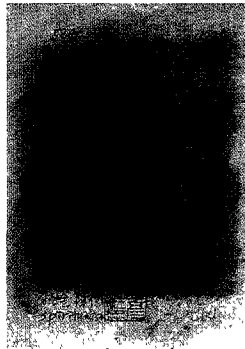
유·무성의 반복교대는 띄엄띄엄 감각여건을 부분충족시키며 어쨌든 진행한다.



28. 강신술(降神術; Spiritualism, Spirit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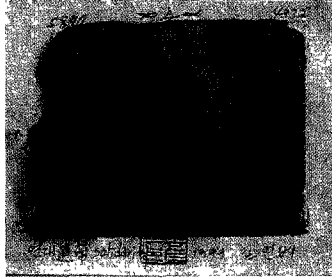
언어차질(言語蹉跎: Silbenstolpern)같은 구음장애(構音障害: dysarthria). 그러므로 거북아, 거북아 ...

3차원 우주지도의 모습이 완성되고 나는 머리위의 인공위성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광활한 우주는 인류의 미래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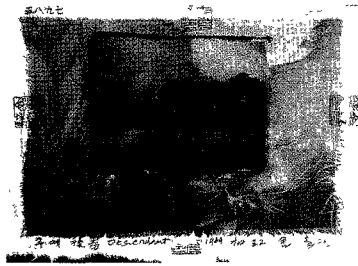


29. 연대(連帶; Solidarity)

내가 연대해야 할 과거로부터 연대를 지원받아 연대를 초월하여 연대로 갈 때 학문의 자유 academic freedom는 신학의 권위로부터 해방되었으므로 스스로 구속이 되었다.



30. 후예(後裔; descendant)



연 보

• 학 력

- 1977. 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입학(디자인 계열)
- 1981. 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공예디자인과 염직정공)
- 1985. 3 홍익대학교 대학원 입학(공예과 섬유공예 전공)
- 1987. 2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공예과 섬유공예 전공)
- 1999. 3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미술학과 섬유미술전공)

• 교육경력

- 1985. 9 - 1988. 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과 연구조교
- 1988. 3 - 1990. 2 경원대학교 예술대학 섬유미술과 강사
- 1988. 8 - 1990. 2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산업미술과 강사
- 1989. 3 - 1989. 8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강사
- 1989. 8 - 1992. 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과 강사
- 1990. 3 - 1992. 2 울산대학교 조형대학 섬유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1992. 4 - 1996. 2 울산대학교 조형대학 섬유디자인학과 조교수
- 1996. 4 - 2001. 2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 섬유디자인학과 부교수
- 2001. 3 - 현 재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 섬유디자인전공 교수

• 군 복 무

- 1981. 4. 6 입대(해병대 간부후보생 66기)
- 1985. 7. 31 전역(예비역 해병중위)

• 논 문

- 1. 1986. PET감량직물의 염색작품 응용연구
- 2. 1991. 영남지역 섬유산업계의 디자인 전문인력 현황조사
- 3. 1992. 전사날염에 관한 연구
- 4. 1992. 여대생의 의복가치와 장신구에 관한 관계 연구
- 5. 1996. 가야유물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 6. 1999. 국가상징물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 7. 1999. Christo Javacheff의 <Running Fence>와 김언배의 <자유의 혼>에 관한 비교 연구
- 8. 2000. 한국전통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 9. 2001. J.Christo의 <Running Fence>에 관한 연구
- 조형기호학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 개 인 전

- 1987. 제1회 개인전 (바탕골 미술관, 서울)
- 1988. 제2회 개인전 (바탕골 미술관 초대, 서울)
- 1992. 제3회 개인전 (바탕골 미술관 초대, 서울)
" (한마음회관 초대, 울산)

- ” (윤화랑 초대, 울산)
- 1994. 제4회 개인전 (공평아트센터 초대, 서울)
” (김민제갤러리 초대, 울산)
- 1997. 제 5회 개인전 (인터갤러리 아트센터 초대, 서울)
- 1999. 제 6회 개인전 (갤러리화인 초대, 서울)

교내의 봉사활동

● 교내 보직 및 위원회

- 1992. 3 - 1996. 2 울산대학교 조형대학 학장보
- 1995. 3 - 1997. 4 울산대학교 조형대학 섬유디자인학과 학과장
- 1992. 3 - 1996. 2 사회교육원 운영위원
기린학사 ”
취업보도위원회 ”
입시관리위원회 ”
장학운영위원회 ”
- 1992. 3 - 1997. 2 아산도서관 운영위원
- 1994. 9 - 1996. 2 시설활용위원회 위원
- 1997. 9 - 1999. 2 디자인대학 교수협의회장
- 1999. 3 - 2000. 2 사회교육원 지도교수

● 협회 임원

- 1992. 3 - 1994. 2 경남산업디자인협회 총무이사
- 1992. 2 - 2000. 2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부산·경남지회 부지회장
- 2000. 2 - 현 재 한국조형예술학회 감사

● 심사 위원

- 울산광역시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 (사)부산섬유패션 경진대회 심사위원
- 진주셀크 경진대회 심사위원

● 미술 위원

- 1997년 ~ 2000. 2 울산광역시 미술위원

● 학회

- 1999. 3 한국조형예술학회
- 1999. 9 한국 기초조형학회

작품발표

● 1980년대

연도	전시명	주관	장소
			전시장 / 도시명
1981	Art & Craft Exhibition	미8군	MOYER ARTS & CRAFT CENTER, 8TH U.S ARMY, YONGSAN
1984	겨울 대성리 31인전 서울국제무역박람회 (현대그룹 일러스트레이션)	대성리운영회 무역협회상공부	경기도 가평 화랑포 해변 서울KOEX
1985	염형전 홍익섬유조형전	염형회 홍익대학교	홍익대박물관 / 서울 홍익대박물관 / 서울
1986	섬유조형대상전 수상(Printing) '86 여기는 한국전 홍익섬유조형전	홍익섬유조형회 한국전운영위 홍익대학교	디자인포장센터 / 서울 동승동 대학로 / 서울 홍익대박물관 / 서울
1987	김언배 · 김이평 · 박병대 · 방국현 4인전 제2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입선 김언배 · 방국현 2인전	한국미술협회	바탕골미술관 /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 과천 이화갤러리 / 서울
1988	7인의 야외작업전 한강의 꿈전	바탕골미술관 한강의 꿈 운영위	바탕골미술관 / 서울 한강터(풍납동 시민공원) / 서울
1989	홍익염형전 빛과 움직임전	홍익염형회 무역센터 현대미술관 초대	문예진흥원 미술관 / 서울 무역센터 현대미술관 / 서울
	한국 공예가 협회전 홍익섬유조형전	한국 공예가회 홍익섬유조형회	디자인포장센터 / 서울 대북 시립미술관 / 대만

● 1990년대

전시기간		전 시 명	주 관	장 소	
연도	~부터 ~까지			전시장 / 도시명	
1990	5.1 ~ 5.15	한국 현대미술 90년대 작가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시립미술관 / 서울	
	7.14 ~ 7.20	홍익섬유조형전	홍익섬유조형회	디자인포장센터 / 서울	
	7. 7 ~ 7.20	서울섬유미술제	서울섬유미술제 운영위	시립미술관 / 서울	
	8.24 ~ 8.30	포스트모더니즘 페스티벌	후후예술운동회	소나무갤러리 / 서울	
	8.27 ~ 9.10	한국 공예가회전	한국 공예가회	시립미술관 / 서울	
	12. 5 ~12.11	울산대학교 조형대학 교수작품전	울산대학교	목호문화공간 / 울산	
	12.24 ~12.	경남 산업디자이너 협회전	KIDA	KBS hall / 창원	
	1991	1.25 ~	평화미술협회 창립전	평화미술협회	타래 미술관 / 서울
		5. 1 ~ 5.30	한라아파트 색채 계획	울산대 산업디자인 연구소	울산
		8.20 ~ 8.31	홍익섬유조형전	홍익섬유조형회	한원 미술관 / 서울
		10.14 ~10.17	서울 텍스타일 디자인전	섬유산업연합회 / 상공부	올림픽 체조경기장 / 서울
		12. 4 ~12. 9	경남 산업디자이너 협회전	KIDA	가야화랑 / 진주
91.5.31 ~92.5.31		울산 신도시 가로환경 조성계획		삼산 신시가지 / 울산	
1992		7. 2 ~ 7. 5	한국 텍스타일디자인협회 창립전	KTDA	디자인 포장 개발원 / 서울
		8.24 ~ 9. 2	홍익섬유조형전	홍익섬유조형회	한원갤러리 / 서울
	10.23 ~10.29	한국미술협회 울산지부전	한국미술협회	MBC 화랑 '학성' / 울산	
	11. 5 ~11. 7	과학 + 예술전	한국 과학 기술 진흥 재단	KOEX / 서울	
	11.30 ~12. 5	경남 산업디자이너 협회전	KIDA	한마음 전시실 / 울산	
	12. 7 ~12.14	재울 홍익동문전	재울홍익동문회	한마음 전시실 / 울산	

전시기간		전시명	주관	장소	
연도	~부터 ~까지			전시장 / 도시명	
1993	6.1 ~ 6.7	홍익섬유조형전	홍익섬유조형회	시립미술관 / 서울	
	8.14 ~ 8.24	남부현대미술제	남부현대미술제 운영위	울산문화원 / 울산	
	9.15 ~ 9.19	한국 텍스타일디자인 협회전	KTDA 운영위	섬유센터 / 서울	
	11. 2 ~11. 7	한국미술협회 울산지부전	미술협회	모드니 백화점 전시실 / 울산	
	12. 3 ~12. 7	경남 산업디자이너 협회전	KIDA	성안 백화점 전시실 / 마산	
	12.15 ~12.21	울산대학교 교수작품전	울산대학교	한마음 전시실 / 울산	
	1994	2.18 ~ 2.28	울산대학교 조형대학 교수작품전	울산문화방송	MBC 화랑 '학성' / 울산
		7.21 ~ 7.30	'94 오늘의 한국 미술전	한국미술협회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 서울
		10.28 ~11. 3	울산미협전	울산미협	한마음 전시실 / 울산
		11.18 ~11.22	한국 텍스타일 디자인 협회전	한국텍스타일디자인 협회	섬유센터 / 서울
11.30 ~12. 6		개인전	공평 아트센터 초대	공평 아트센터 / 서울	
12. 7 ~12.11		'94 과학 + 예술전	한국 과학 기술 진흥 재단	KOEX / 서울	
12.27 ~12.31		개인전		김민제 갤러리 / 울산	
12.19 ~12.25		울산 관화가회 창립전	울산 관화가회	모드니 백화점 미술관 / 울산	
1995		4. 7 ~ 4.30	향토 작가 초대전	현대중공업/ 한마음 회관	한마음 전시실 / 울산
		4.24 ~ 4.30	홍익섬유조형전	홍익섬유조형회	시립미술관 / 서울
	6. 8 ~ 6.16	울산·부산 연합 관화전	익산갤러리	익산갤러리 / 울산	
	6. 9 ~ 6.15	태화강 오늘전	울산 관화가회	MBC 학성 화랑 / 울산	
	10. 5 ~10.11	울산 미협전	울산 미협	/ 울산	
	12.12 ~12.19	울산대학교 조형대학 교수작품전	울산대학교	무거갤러리 / 울산	

전시기간		전시명	주관	장소	
연도	~부터 ~까지			전시장 / 도시명	
1996	2. 1 ~ 2.23	울산대학교 조형대학 교수작품전	울산대학교	포틀랜드 대학 아웃젠 갤러리 / 미국	
	4.24 ~ 4.30	재울 홍익미대 동문전	홍익동문회	문화예술회관 / 울산	
	7. 2 ~ 7. 6	홍익섬유조형전	홍익섬유조형회	모스크바 산업미술대학	
	12. 4 ~12.15	한국현대미술 - 현재와 미래 展	홍익대학교	홍익현대 미술관	
	12.10 ~12.16	울산대학교 조형대학 교수작품전	울산대학교	울산문화예술회관	
	1997	4.17 ~ 4.28	울산환경미술제	울산환경미술제 운영위	울산, 울산문화예술회관
		6. 3 ~ 6.10	김언배 개인전	인터갤러리 아트센터 초대	서울 인터갤러리 아트센터
6.11 ~ 6.20		제16회 홍익섬유 조형전	홍익섬유 조형회	서울 원서갤러리	
6.17 ~ 6.23		울산대학교 / 포틀랜드 주립대학 합동교수작품전	울산대학교조형대학	울산, 무거갤러리	
12.16 ~12.23		예술가의 눈	재울 홍익동문회	울산, 무거갤러리	
1998			소품전	재울 홍익동문회	울산, 윤갤러리
		7.17 ~ 7.22	'98 울산현대미술제	울산현대미술제 운영위	울산, 울산문화예술회관
	10. 8 ~10.12	제3회 진주 실크 경진대회 초대 작가 작품	한국견직 연구원	진주, 진주문화예술회관	
	10.24 ~11. 1	제7회 홍익전	재울 홍익동문회	울산, 울산문화예술회관	
	12. 1	제7회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작품전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	울산, 무거갤러리	
1999	2.18 ~ 2.28	홍익섬유조형전	홍익섬유조형회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5.25 ~ 5.30	제7회 대구국제 섬유디자인 교류전 초대 작가 작품	대구섬유디자인연합회 한국텍스타일디자인연합회 대구 경북지회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1999	2.18 ~ 2.28	홍익섬유조형전	홍익섬유조형회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5.25 ~ 5.30	제7회 대구 국제섬유디자인 교류전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대구문화예술회관. 서울	
	8.23 ~ 8.29	제6회 김언배 개인전	화인센터, 갤러리화인	갤러리 화인. 서울	
	9.13 ~ 9.19	한국섬유패션연합 창립전	한국섬유패션연합	갤러리 화인. 서울	

전시기간		전 시 명	주 관	장 소	
연도	~부터 ~까지			전시장 / 도시명	
1999	10. 1 ~10.10	울산관화협회전	울산관화협회	현대아트갤러리, 울산	
	10. 8 ~10.17	제4회진주실크경진대회 초대출품	한국전직연구원	진주문화예술회관, 진주	
	10.16 ~10.30	마가미술관 초대전	마가미술관	마가미술관, 용인	
	11.02 ~11.08	홍익전	홍익동문회	현대예술관 갤러리, 울산	
	11.30 ~12.04	한·일 교수교류전	울산대학교	무거갤러리, 울산	
	11.30 ~12.04	한국텍스타일 디자인협회전	한국텍스타일협회	부산광역시청사, 부산	
	2000	4.03 ~ 4.28	울산대학교 교수작품전	포틀랜드 주립대학	Littndn & White Gallery Portlndn.OR.USA
		8. 9 ~ 8.15	아시아 섬유미술제	아시아섬유미술제운 영위원회	덕원미술관, 서울
2001	5.12 ~ 5.20	제20회 홍익섬유조형전	홍익섬유조형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7.25 ~8.12	울산대학교 섬유디자인학과 교수5인 의 교수작품전 '섬유+아티에르'展	이따미시+이따미문화진흥 재단+이따미크래프트협회	이따미시립 공예센터, 일본	
	8.08 ~8.14	아시아 섬유 미술제	아시아섬유 미술제 운영위원회	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8.10 ~8.30	다노시마루 초대 아시아 섬유 미니어처 전	다노시마루시	Mark Wolly Gallery	
	10.02 ~10.27	Interndtional Printmaking Symposium 2001	PSU & Portland City	갤러리 공간	
	10.20 ~11.02	21c 섬유예술의 전망 2001 부산섬유·패션아트 페스티벌	울산대학교	부산전시·컨벤션 센터	
	10.18 ~11.06		부산광역시		
	2002	10.15 ~ 10.24	FACING FACES UOU·PSU 교수작품교류전	울산대학교	현대아트갤러리, 울산
10.23 ~ 10.29		국제교류미술전	일본규수 산업대	규수산업대학 미술관, 일본	
11.06 ~11.12		홍익섬유조형전	홍익섬유조형회	세종문화회관, 서울	
11.14 ~11.23		2002 부산 국제섬유·패션아트 페스티벌	부산광역시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 CO), 부산	
5.29 ~6.25		2002 깃발미술축제	2002한일 월드컵 공식문화행사	월드컵공원, 서울	
11.28 ~12. 4		북경 중앙 미술학원 초대전	중국북경중앙미술학원	북경중앙미술학원, 중국	
12. 12.27		롯데미술관 초대전 아시아 섬유예술전	롯데 미술관 아시아 섬유예술제 운영위원회	롯데미술관, 안양 중국청화대학미술관, 중국	
2003~1.2					

참고문헌

1. 문헌사료

- 「삼국사기」
- 「삼국유사」
- 「일본서기」
- 「고사기」

2.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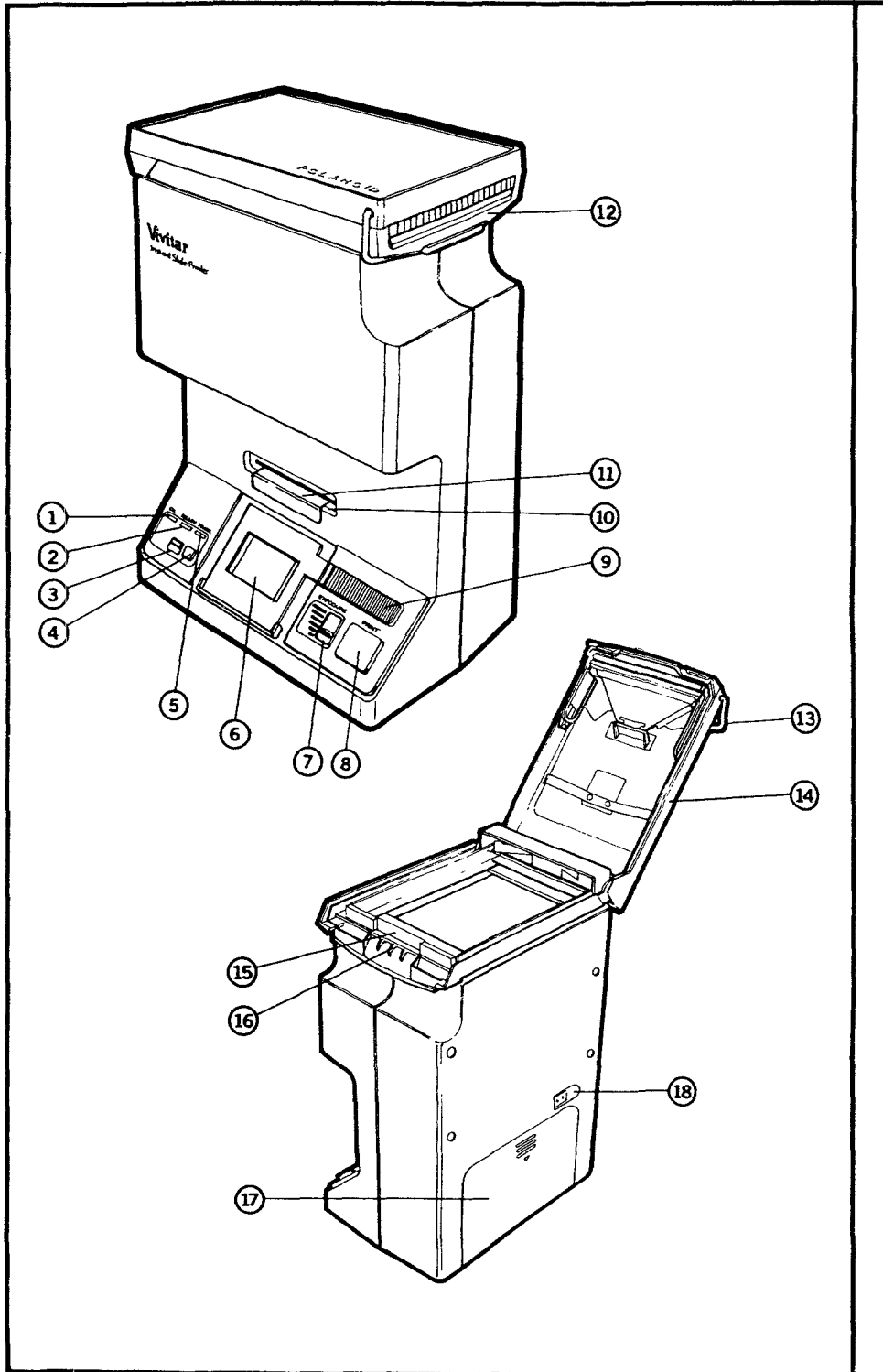
- 김태식, 「가야연맹사」(서울 : 일조각, 1993)
-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가야사론」(서울 : 서울출판 서비스, 1993)
- 천관우, 「가야사연구」(서울 : 일조각, 1991)
-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가야제국의 철」(서울 : 1995)
- 노성환, 「한일왕권 신화」(울산대학교 출판부, 1995)
- 김병모, 「김수로왕비 허황옥」(서울: 조선일보사, 1994)

부록 : 작품제작 장비의 개요

Vivitar.

Instant Slide Printer™
Dia Copieur instantané
Dia-Bildkopierer
Copiador instantáneo de diapositivas
Dia Moment-Afdrukapparaat
Riproduttore istantaneo per diapositive
Dia-direktkortapparat

Instructions • Mode d'emploi • Gebrauchsanleitung • Instrucciones
• Gebruiksaanwijzing • Istruzioni • Bruksanvisning



Introduction

Vivitar's Instant Slide Printer™ allows you to make color prints, black & white prints and black & white negatives instantly from 35mm mounted slides. Using Polaroid® pack film, the printer produces 3¼ x 4¼ (8.3 x 10.8 cm) prints. For best results, we suggest using Polaroid Polacolor ER Type 669 film or Polacolor 2 type 108 film. For black & white prints and negatives use type 665 film.

Inform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If you should ever require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your Vivitar Slide Printer or Polaroid pack films please contact

Polaroid for Film Related Problems —
Toll Free Number (800) 225-1618.
In Massachusetts (Call Collect)
(617) 547-5177

Vivitar (213) 829-3672
or contact your local Vivitar Service Center

Feature call outs

- 1 OK Light
- 2 Ready Light
- 3 Power On/Off Switch
- 4 Timing Button
- 5 Timing Light
- 6 Viewing Panel
- 7 Exposure Control
- 8 Print Button
- 9 Framing Selector
- 10 Slide Slot
- 11 Filter Holder
- 12 Film Holder
- 13 Film Door Latch
- 14 Film Compartment Door
- 15 White Tab Slot
- 16 Yellow Tab Slot
- 17 Battery Chamber
- 18 Optional AC Power Outlet

Power supply (Illustration A)

- I. Install four "C" cell type alkaline batteries, following polarity symbols shown in compartment (Use of nickel cadmium batteries is not recommended as they may damage the unit's circuitry)

Batteries should be replaced when red ready light (2) fails to glow within 20 seconds of switching on the power switch or viewing panel light becomes too dim for use.

It is recommended batteries be removed when printer is not used for long periods of time to prevent damage caused by leakage.

English

An optional power source, **Vivitar SB-6 Adapter**, is available in some countries at your photo dealer. This adapter allows you to power the printer using standard electrical outlets.

- II. **Loading Film:** Pull film door latch up (13) and open film compartment door (14). Before loading the film, check to see the developer rollers are clean. (See "Keep the development rollers clean" in Maintenance Section.) Hold film pack at edges, not center, and slide the film in at an angle and then push into place (Illustration B). Check that the white tabs are not caught between pack and unit (Illustration C). Close door and latch. Holding the top of the unit with left hand, pull black tab straight out (Illustration D). A small white tab will appear, indicating the film is loaded (Illustration E). If no white tab appears when you remove black tab, move the printer to a dimly lit room. Open film door slightly, and push the white tab into the opening. Close and latch door.

- III. Turn power switch on (3). Place clean mounted slide on viewing panel for viewing. The slide should be placed on the viewing panel (6) horizontall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horizontal or vertical scene. Place slide so the scene appears normal, *not backwards (dull side down)*. Since Polaroid film is not proportionate to a 35mm slide, a small portion of the slide image will not be reproduced. The viewing panel illuminates the image which will be produced on the print. By moving the framing selector (9) you can choose the area to be printed (Illustration F). If print button is accidentally depressed while the slide is on viewing screen, exposure will not occur — the slide must be in the print position, (that is, within slide slot) to activate exposures.

- IV. After composition is determined, place the slide into the slide slot (10), leaving the slide in the same orientation as it appeared on viewing panel (dull side down) (Illustration G). The filter holder (11) need not be removed when using standard cardboard or plastic mounted slides. Be careful not to move framing selector while placing the slide into the slide slot.

NOTE: When using thick slides mounted in glass, remove the filter holder (11) from slot. Be sure to replace the filter holder with thumb grip pointed toward the viewing panel when printing standard cardboard or plastic slides.

- V. Leave the exposure control (7) at normal setting for most well exposed slides.

(Illustration H) If the slide to be printed is overexposed (light slides) move the exposure control down to receive a darker print For underexposed slides (darkslides) move the lever up for lighter prints Slides with predominantly light or white backgrounds may require you to move the exposure control up for more accurate exposure

- VI Print Making sure the red ready light (2) is illuminated, press the print button (8) (Illustration I) A green OK light (1) will illuminate, signifying the film received the proper amount of exposure if the green light fails to light, wait for the red ready light to turn on and press the print button again (This will only occur on extremely dark slides.) The green light will not light during second exposure, but proceed to next step
- VII Supporting the top of the unit with your left hand pull the white tab straight out (Illustration J) This action will cause a yellow tab to appear If no yellow tab appears check Possible problems Causes and Cures section
- VIII Still supporting the unit with your left hand, grasp yellow tab and pull straight out at moderate speed without hesitation (Illustration K) This starts the development process

When using Polaroid type 665 black & white film read instruction sheet packaged with film prior to making a print
- IX As soon as the yellow tab is pulled straight out press the timing button (4) (Illustration L) This will start timing sequence and will turn on the yellow timing light (5) In approximately 35 seconds a short beep will be heard (for black & white film) and in about 70 seconds, a long beep will be heard (for color print film) and the yellow timer light will go out

NOTE: Timer can be restarted anytime during the timing cycle by repressing the timer button with power switch in on position The timing light will remain lit even though the timing sequence was restarted The timer will remain activated even after power switch is turned off

- X. When beeper sounds, — short beep for black & white film and long beep for color print film — separate print from negative, starting at end nearest yellow tab (Illustration M) Be careful not to allow the print to fall back onto negative or to touch the surface of the print Do not touch the surface of the print until it is completely dry (approximately five minutes)

Other printing techniques

Filtering Filters can be used for corrective or special effects Simply remove filter holder (11) and separate Place one or more 2 x 2 inch (5 x 5 cm) gelatin filters between holders Replace the filter holder in slide slot with thumb grip pointing towards the viewing screen Insert slide and take picture (Illustrations N, O)

When using glass mounted slides the filter holder must be removed Trimmed filters can, however, be sandwiched in the glass mount with the slide Since exposure is automatic, no adjustments are necessary

Multiple exposures. Two or more exposures of the same print can be made Be sure to wait for the flash ready light to illuminate prior to making an additional exposure

Also, two or more exposures can be made from different slides for special effects Prints will however, have a tendency to be light due to the additional exposure

Maintenance

Keep the development rollers clean (Illustrations P,Q)

Dirt on the development rollers can cause a number of picture problems Inspect them before loading film, and clean them if necessary With both hands, lift the steel loops and remove the roller assembly Clean both rollers with a damp lint free cloth or hold the rollers under clean running water Never scrape them with anything metallic, nor with your fingernail Rotate both rollers as you clean and inspect them Also clean the film tab slot Then place the roller assembly back into the film compartment

Viewing Panel Bulb Replacement (Illustration R)

Lift up to the right the *viewing panel mask* and remove the *viewing panel* To remove the lamp, press it down and rotate it counterclockwise until it pops out Replace it with the extra bulb included with the Owners Manual or GE 212 or equivalent Press the new bulb into the socket making sure the tiny knobs on the lamp base match up with the openings on the socket While pressing down, turn the bulb clockwise Replace the viewing panel and return the viewing panel mask

Caution:

The developing process uses a caustic jelly which is safely packed inside sealed containers within the film pack If accidentally you should get some of this jelly on your skin, wipe it off immediately To avoid alkali burn, wash the area

with plenty of water as soon as possible.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keep the jelly away from eyes and mouth.

Keep discarded materials out of reach of children and animals, and out of contact with clothing and furniture, as discarded materials still contain some jelly.

Possible problems: Causes and cures

If no yellow tab appears when you pull the white tab: Do not pull another white tab. Instead, being sure to shade the film from strong light, carefully open the film door without disturbing the film pack. Holding the pack in place, grasp the topmost yellow tab. Gently pull the entire picture assembly all the way out of the pack and discard it. Don't try to save it. While the door is open, check that the rollers and film door are clean. Dirty rollers can prevent the yellow tab from appearing. Close and latch the door, making sure that the next white tab sticks out of the small slot.

If you accidentally pull two white tabs in a row: You will get two yellow tabs out at the same time. Both pieces of film will be ruined, and unless you are careful, you may lose a third picture. Do not open the film door. Grip both yellow tabs firmly, pull them both out together, and discard both pieces of film. This may cause developer paste to be spread around in the rollers and in the film tab slot. Open the film door and, without disturbing the film pack, clean the rollers and tab slot as described previously before taking the next picture.

Picture related:

Nearly black image or solid black (greatly underexposed or not exposed): Be sure the safety cover has been removed from the film pack, and that the red ready light is on before

making the exposure.

Very light image or none at all (greatly overexposed or light struck): Do not remove the safety cover before loading the film, and do not remove the film pack from the unit after having pulled the safety cover out (the top picture only will be ruined). Be sure there is a slide in the slide slot.

Too light (overexposed) or too dark (underexposed): Check the exposure control, be sure the red ready light is on.

Muddy looking print, dull weak colors: The print wasn't developed long enough. Be sure that you are separating the prints at the correct beep, short beep for black & white film, long beep for color prints. If the room temperature is low, check the film tip sheet to confirm that you are using the correct development time.

Repeated white spots: The developer rollers are dirty. Inspect them before loading film, and clean them if necessary.

Many random white specks: Pull the yellow tab a little more *slowly*. Color prints may have a pink mottle overall as a result of pulling the yellow tab too fast.

Missing corners or orange-red marks along edges: Usually caused by pulling the white or yellow tab out at an angle. Pull both tabs out *straight and steadily* all the way. Also caused by dried developer chemicals on the rollers.

Oblong in print: The white tab was not pulled all the way out and discarded. When the yellow tab was pulled, the white tab was pulled back into the pack.

Broad streaks: Due to hesitation or stopping while pulling the yellow tab out.

Dust marks or spots in image: Can be caused by dirt on the slide.